

2024. 7. 21.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본문: 다니엘 Daniel 3:19-25

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표준새번역) 3:19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ESV) 3:19 Then Nebuchadnezzar was filled with
fury, and the expression of his face was
changed agains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He ordered the furnace heated
seven times more than it was usually heated.

3:20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3:20 And he ordered some of the mighty men of
his army to bin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d to cast them into the burning
fiery furnace.

3:21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3:21 Then these men were bound in their cloaks,
their tunics, their hats, and their other
garments, and they were thrown into the
burning fiery furnace.

3:22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3:22 Because the king's order was urgent and the furnace overheated, the flame of the fire killed those men who took up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3: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3:23 And these three me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fell bound into the burning fiery furnace.

3:24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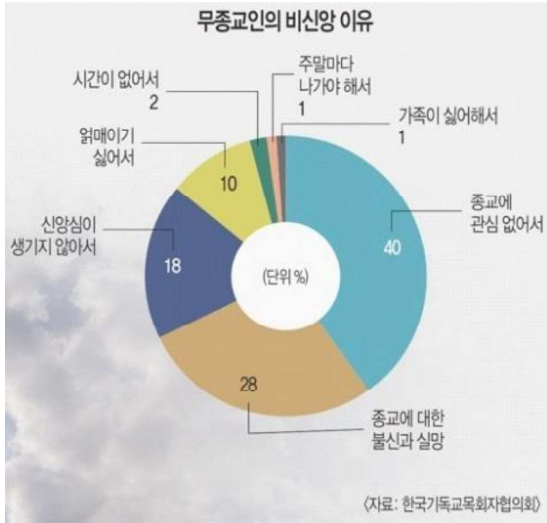
3:24 Then King Nebuchadnezzar was astonished and rose up in haste. He declared to his counselors, "Did we not cast three men bound into the fire?" They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True, O king."

3:25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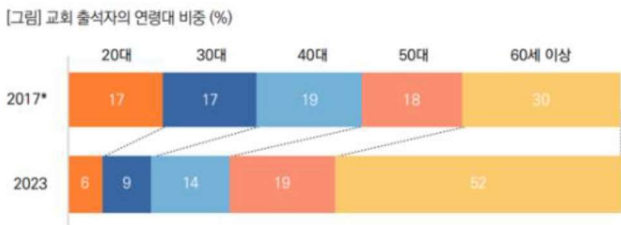
3:25 He answered and said, "But I see four men unbound, walking in the midst of the fire, and they are not hurt; and the appearance of the fourth is like a son of the gods."



2022 년. 한국 사람의 63%가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고,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2017 년과 2023 년에 비교한 자료를 보면, 특히 젊은 세대, 20 대와 30 대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 대와 10 대는 무종교의 비율이

한국은 80%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문의 세계에서, 예술 분야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은 환영받지 못하는 추세이며, 특히 기독교 신앙은 배척받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자료 출처 : 한익협,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실제 연령별 출석구를 바탕으로 개신교인 비율과 가나안 성도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

아벳느고의 시대는 종교의 시대였지만, 그들의 신앙적 선택은 목숨을 걸어야 할만큼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상의 시대 뿐 아니라, 지금 무신론의 시대, 탈종교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도,

**✓ 신앙적 선택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신상에 모든 관리와 신하들이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신앙적 선택)은 16 절, 대답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3:16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O Nebuchadnezzar, we have no need to answer you in this matter.

**18 절,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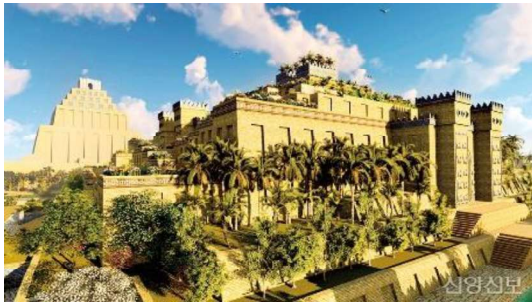
3: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3:18 But if not, be it known to you,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19 절, 그 선택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극대노했고,
7 배나 더 뜨거운 화덕(풀무불, 벽돌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표준새번역) 3:19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ESV) 3:19 Then Nebuchadnezzar was filled with fury, and the expression of his face was changed agains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He ordered the furnace heated seven times more than it was usually heated.



(출처: 내셔널지오그래픽)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공중
정원(유적 복원도)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와서 사막 중간에 세워졌고,
건물, 도로, 수로까지 모두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벽돌을 굽는 온도는 900~100°C
정도였을 것이며,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7 배 더
뜨겁게 하라고 했다는 말은 산술적인 7 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극렬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공학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대략
2000°C(3600°F)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6

온도이면, 금, 은, 구리, 니켈, 백금, 티타늄 뿐 아니라 크로뮴까지도 녹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20 절. 그 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 넣으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3:20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3:20 And he ordered some of the mighty men of his army to bin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d to cast them into the burning fiery furnace.

21 절 그들이 입고 있던 공무원(통치자) 복장 그대로, 손 발과 몸이 묶인채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3:21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3:21 Then these men were bound in their cloaks, their tunics, their hats, and their other garments, and they were thrown into the burning fiery furnace.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으러 갔던 사람들이 가마에서 나오는 불꽃에 타 죽습니다.

3:22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3:22 Because the king's order was urgent and the furnace overheated, the flame of the fire killed those men who took up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23 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 넣어야 할 사람들이 타 죽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벽돌 가마(화덕) 안으로 떨어져 들어갑니다.

3: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3:23 And these three me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fell bound into the burning
fiery furnace.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대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미움받고,
배척 받고, 이제 곤경에 처했으며, 죽음의 순간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John 15:18 "If the world hates you, know that it has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15: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15:19 If you we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you as it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I chose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the world hates you.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선택을 했는데, 그
결정이 나를 곤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바벨론과 신은 없다고 말하며 신앙을 조롱하는 이 땅은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세상을 등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인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고, 이 세상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따지를 겁니다.

한국과 미국 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존중되고, 시민 의식이 높은 나라에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간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알고 갑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선택을 하면 그
선택으로 곤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 **그 곤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5 절, 느부갓네살 왕은 험박하고 회유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겠느냐?’

3:15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겠느냐?"

3:15 Now if you are ready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horn, pipe, lyre, trigon, harp,
bagpipe, and every kind of music, to fall down and worship the image that I have made, well
and good. But if you do not worship, you shall immediately be cast into a burning fiery furnace.
And who is the god who will deliver you out of my hands?"

17 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3:17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3:17 If this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your hand, O king.

이 말은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steadfast love)가 풍성한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다 하실 수 있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틀린답을 찾기도 하고, 나는 ‘가장 좋은’ 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답을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18 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곤경에서 구원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거기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결정이 최선이며, 최고이며,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합니다.

(개역개정) 3: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3:18 But if not, be it known to you,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내 생각에 다른 길이 더
좋아보여도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놓치 않고 끝까지
손잡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6 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 두가지를 보십시오.

(표준새번역) 히브리서 11: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ESV) Hebrews 11:6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whoever would
draw near to God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eek him.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5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 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James 1:5 If any of you lacks wisdom, let him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reproach, and it will be given him.

하나님은 ‘아낌 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없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곤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아낌 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곤경 속에서, 죽음 앞에서, 그 뜨거운 벽돌 가마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24 절, 평소보다 7 배나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 벽돌 가마를 지켜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분명히 3 명이 그 불 속으로 던져졌는데,

3:24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24 Then King Nebuchadnezzar was astonished and rose up in haste. He declared to his counselors, "Did we not cast three men bound into the fire?" They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True, O king."

25 절, 그 벽돌 가마 속에는 4 명이 있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져 넣으려던 힘 센 군인들이 그 불꽃에 타 죽었는데,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그들은 상처도 없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3:25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3:25 He answered and said, "But I see four men unbound, walking in the midst of the fire, and they are not hurt; and the appearance of the fourth is like a son of the gods."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꽃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뜨거운 벽돌 가마가 곤경의 자리가 아니라 평안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통의 순간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날까지 보존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종교가 매력적이지 않은 시대입니다. 과학이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논리적 이성이 성경을 비웃는 세상입니다. 우상을 강요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듯이, 무신론의 시대, 종교와 신앙을 무시하는 이시대에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다가 믿음의 선택 때문에 곤경에
빠진다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슬픔의 자리가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이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변하여 성장과 성공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